

한국목록규칙 4판 개정판의 구성 방안 연구*

Suggestions for the Composition of KCR4 Revision

도 태 현(Tae-Hyeon Doh)**

〈목 차〉

I. 머리말	4. RDA
II. KCR4의 현황과 개정 필요성	5. NCR 개정안
III. KCR4의 개정에 수용할 동향	IV. KCR4 개정판의 구성을 위한 제안
1. FRBR, FRAD 모형	1. 구성을 위한 원칙
2. ICP 2009	2. KCR4 개정판의 구성을 위한 제안
3. ISBD 통합판	V.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FRBR과 FRAD 모형, ICP, RDA, NCR 개정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KCR4 개정판의 구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가족, 단체, 개념, 대상, 사건, 장소로 구분한다. 2) 규칙 전체는 '속성'과 '관계'로 대별하며 '속성'은 다시 속성 기술과 접근점 구축으로 구분한다. 3) 속성 기술은 1집단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순으로, 2집단 개체는 개인, 가족, 단체의 순으로 배열한다. 4) 접근점 구축은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구축, 개인, 가족, 단체의 접근점 구축 순으로 배열한다. 5) '관계'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기타 관계와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둔다.

키워드: 한국목록규칙, 목록규칙, 개체, 속성, 관계

ABSTRACT

FRBR and FRAD model, ICP, RDA, NCR Revision are analyzed for the composition of KCR4 Revision. Based on the results, follows are suggested. 1) Entities are divided into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item, person, family, corporate body, concept, object, event, place. 2) Entire cataloging rules are grouped into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and then 'attributes' is divided into attributes describing and access points constructing. 3) Attributes describing is divided into attributes describing of works, expressions, manifestations, items, persons, families, corporate bodies, and arranged as the sequence. 4) Access points constructing is divided into access points constructing of works, expressions, persons, families, corporate bodies, and arranged as the sequence. 5) 'Relationships' is divided into other relationships between group 1 entities, and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families and corporate bodies.

Keywords: KCR, Cataloging rules, Entities, Attributes, Relationships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5AA116)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thdoh@deu.ac.kr)

•논문접수: 2015년 11월 19일 •최초심사: 2015년 11월 24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1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07-226,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207]

I. 머리말

한국목록규칙 4판(이하 KCR4라고 함)은 3판에 비하여 기술대상 자료의 유형을 확장하였으나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의 개념이 배제됨으로써 기술규칙 중심의 목록규칙이 되었다. 그러나 영미목록규칙 2판(이하 AACR2라고 함) 및 이후의 RDA에서도 여전히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의 개념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하 IFLA라고 함)을 중심으로 목록규칙의 국제 표준화를 지향한 일련의 제안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FRBR, FRAD 모형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 성명을 대신할 국제목록원칙규범 2009(이하 ICP 2009라고 함)를 제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동향들을 수용한 목록규칙으로 RDA가 제정되었으며, 자료 유형별로 간행되었던 ISBD는 통합판으로 제정되었다. 근래 일본목록규칙(이하 NCR이라고 함)도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목록규칙의 국제적 표준화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KCR4에 대하여는 표목 규칙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거기에 FRBR 모형과 같은 새로운 목록 체계의 등장, ICP 2009, RDA 제정 등 목록규칙에 관한 환경의 변화는 KCR4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게 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이나 이러한 동향을 KCR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박진희 2009; 이미화 2011; 2012 등).

RDA나 NCR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목록규칙들은 이전 목록규칙에 비하여 구성 체계의 변화를 겪었다. KCR4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기존의 구조에 비하여 생소한 대폭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KCR4의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그 구성 체계를 논하고 확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CR4의 개정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목록규칙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FRBR, FRAD 모형과 ICP 2009를 분석함으로써 목록에 관한 새로운 체계와 표준적 원칙을 살펴보고 이를 KCR4 개정판에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미 이러한 표준들을 수용하여 개정된 RDA를 비롯하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NCR의 개정 과정도 분석, 참고한다.

이 연구의 제안은 KCR4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구성 체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제안이 KCR4의 개정판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토론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KCR4의 현황과 개정 필요성

KCR 초판과 수정판은 모두 기본표목의 선정, 표목 형식, 기술목록규칙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IFLA가 기술규칙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제정한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이하 ISBD라 함)을 수용하여 1983년 개정된 KCR3는 기본표목에 관한 초판과 수정판의 전통을 수정하였다. 기본표목 없이 기술부만으로 저록을 작성하고 표목부를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구분 없이 등가의 접근점으로 역할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부와 표목부를 독립시킨, 이름하여 기술단위방식의 목록규칙이었다. 제3판을 기점으로 KCR에는 기본표목에 관한 규칙이 제외되었다.

2003년 KCR3와 KORMARC기술규칙을 통합 개정된 KCR4가 제정되었다. 기본표목에 관한 KCR3의 기초는 KCR4에도 승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KCR4는 통일표목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특정 표목에 대하여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 형식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 간의 연결 기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표목의 검색기능과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韓國圖書館協會 2003, x)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KCR4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이 모두 제외된 기술규칙 중심의 목록규칙이 되었다.

그러나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향후 개정될 목록규칙에서 표목(접근점)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장 사서들의 경우 표목(접근점)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67%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정현 2013,13). 표목의 취급 방식에 관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는 KCR4가 추구한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목에 대한 KCR4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본표목이나 통일표목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고 기계가독형목록(이하 MARC라고 함) 레코드에서도 기본표목 필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KCR4의 표목 관련 규칙의 현재적 상황은 목록규칙에 의해 작성된 형식으로 입력해야 하는 MARC 레코드의 표목 관련 필드에 목록규칙이나 전거시스템으로 제어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 KCR4의 표목 취급에 관한 방침과 도서관 현장 사정의 상충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서관계에서 생산되는 목록레코드의 표준화를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KCR4는 종래의 ISBD나 AACR2의 전통에 따라 자료 유형별 기술규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동안 역시 자료유형별로 분리되어 간행되었던 MARC 포맷이 통합서지용으로 통합됨으로써 목록규칙도 자료유형별 기술규칙에서 단일 체제로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ISBD는 2011년 통합판을 발행하였으며 유형별 기술규칙 중심의 KCR4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2009년 IFLA에 의해 목록 체제의 새로운 개념 모형으로 제시된 FRBR 모형과 그 보완 모형인 FRAD, 그에 따른 ICP 2009의 제정은 목록 체제에 관한 인식을 바꾸었다. AACR2는 FRBR, FRAD 모형에 근거하여 RDA 체제로 개편 제정되었으며, 일본도서관협회는 일본국회도서관과 제휴하여 NCR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KCR4의 표목에 관한 규칙 미비로 야기된 도서관 현장에서의 문제 외에도 목록에 관한 새로운 표준안과 원칙의 등장, 이러한 동향을 수용한 여타 목록규칙의 개정 추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KCR4 개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12년 4월 KCR4의 개정에 관한 첫 번째 회의가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KCR4를 전면 개정하는 경우 ICP 2009, RDA와 ISBD 통합판, 전거까지 포함하는 목록규칙의 틀을 제대로 갖추어 내놓으려면 수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로 할 것이므로 당장 목록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책과 전자저널의 목록규칙만이라도 KCR4의 보유편으로 발행하자는 결정(한국도서관협회 2013, vi)에 따라 2013년 KCR4 보유편 전자책, 전자저널 기술규칙을 출판한 바 있다. 이러한 대안은 KCR4의 전면 개정을 유보한 것이었을 뿐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새로 구성된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는 KCR4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지난 3년간 그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논의의 1차적 관점은 KCR4 개정의 필요성과 지향해야 할 원칙, 구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들이 한국도서관협회의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바도 있다(제51회 대회(2013년, 김정현), 제52회 대회(2014년, 도태현), 제53회 대회(2015년, 이미화 외)의 발표가 있었다).

Ⅲ. KCR4의 개정에 수용할 동향

1. FRBR, FRAD 모형

1997년 제63차 IFLA 총회에서 제출된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에 관한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서지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를 이 레코드의 이용자 요구와 관련짓기 위하여 분명하게 정의된 구조화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국가서지 기관이 작성한 서지레코드에 대한 기초수준의 기능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IFLA Study Group on FRBR 2009, 7).

FRBR 모형에서 개체의 속성, 개체 간에 작용하는 관계 유형을 식별하고 이를 정의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한 것은 서지레코드의 이용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업과 (레코드에서 고유

한 데이터 요소로 반영되는) 속성, 관계를 연결하는데 기초로 사용될 개념모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FRBR에서 '개체'란 서지데이터 이용자들의 관심의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인, 단체, 개념, 대상, 사건, 장소를 채택하였다. 이들 개체는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1집단에는 지적 노력의 산물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2집단에는 지적 산물의 내용이나 제작에 책임을 갖는 개체인 개인과 단체를, 3집단에는 저작의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 대상, 사건, 장소를 포함시켰다.

각각의 개체들에 대하여는 속성을 분석하고 개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구분 제시하였다. 개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일반적 수준에서 개체가 또 다른 개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관계(이하 상위수준 도표에서 제시된 관계라고 함)로서 1집단 개체 간의 주요 관계, 2집단 개체와 1집단 각 개체와의 책임 관계, 1·2·3집단에 속한 각각의 개체와 저작 간의 주제 관계로 구성된다(IFLA Study Group on FRBR 2009, 14-16).

다른 하나의 관계는 상위수준 도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1집단 개체 간의 부차적인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지정된 개체의 사례들 간에(예를 들면 하나의 저작과 다른 저작 간, 동일 저작의 두 표현형들 간, 한 저작의 표현형과 다른 저작의 표현형 간과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작용하는 네 개의 주요 개체(저작, 표현형, 구현형과 개별자료)와 관련된 일련의 관계 유형(이하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라고 함)이다(IFLA Study Group on FRBR 2009, 56).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로는 '저작과 저작 간의 관계', '표현형과 표현형 간의 관계', '표현형과 (다른) 저작 간의 관계', '구현형과 구현형 간의 관계', '구현형과 개별자료 간의 관계', '개별자료와 개별자료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FRBR 보고서의 나머지 한 부분은 국가서지의 최소한의 기능적 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먼저 이용자 과업을 개체의 탐색, 식별, 선정, 입수로 정의하고 이를 1집단에 속한 각 개체의 속성과 관계에 대응시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초수준의 국가서지 레코드가 지원해야 할 기능을 앞서 중요도 평가에서 높은 값으로 평가된 논리 속성이나 관계와 대응시키고, 이러한 속성이나 관계를 표현하는 데이터 요소를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평가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서지레코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데이터 요소를 기술요소와 조직요소로 구분하여 권고하였다. FRBR 권고안의 기술요소는 ISBD의 기술요소와 일치하며 조직요소로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표목, 표제표목, 총서표목, 주제명 및 분류표목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목록규칙의 표목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FRAD 모형은 전자레코드의 기능 요건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로 FRBR을 확장한 것이며 FRBR과 마찬가지로 개체의 속성 관계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FRAD 모형은 먼저 개체를 선정하고 개체 간의 관계, 즉 상위 수준에서 개체 간의 관계를 식별하여 모형 구조를 제시하였다. FRAD 모형의 핵심은 서지세계에서의 개체(FRBR에서 확인된 개체와 같은)는 이름과(혹은) 식별기호에 의해 '알려지며', 편목과정에서(도서관이나 박물관, 기록관 중 어디에서나) 이들 이름과 식별기호는 제어된 접근점 구축의 '기반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IFLA Working Group on FRNAR 2013, 3).

FRAD에서는 개체를 개인,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상, 사건, 장소와, 이들 개체를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식별기호, 그리고 제어된 접근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서지개체와 이름 및 식별기호는 '~로 알려짐', 이름 및 식별기호와 제어된 접근점은 '~의 기반이 됨'으로 정의하였다.

FRAD 모형에서 제시한 관계 유형은 위와 같은 상위수준 도표에서 제시된 관계 외에 개인, 가족, 단체, 저작들 간의 관계와 개인, 가족, 단체, 저작의 상이한 이름 간의 관계, 그리고 제어된 접근점 간의 관계로도 구분 제시되었다.

2. ICP 2009

ICP 2009는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의 성명을 대체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도서관목록 환경의 변화, 즉 온라인목록과 자료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하였으며 목록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목록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이다.

ICP 2009에서 목록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9).

- ① 목록규칙은 IFLA의 3가지 개념 모형(FRBR, FRAD, FRSAD)에서 정의한 개체, 속성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② 목록의 목적과 기능은 서지자원을 탐색하는 일, 서지자원이나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일, 서지자원을 선정하는 일, 개별자료를 입수 혹은 확보하는 일, 목록의 안팎을 향해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
- ③ 목록규칙에서 규정되어야 할 요소로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제시하였다.
- ④ 서지기술은 구현형을 대표하는 개별자료에 기초하여 저작과 표현형에 속한 속성을 포함하며 기술데이터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ISBD)에 근거해야 한다.
- ⑤ 접근점은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으로 구분하였다. 제어형 접근점은 전거형 이름과 이형의 이름을 제공해야 하며, 비제어형 접근점은 전거레코드에서 제어되지 않은 이름이나 표제(예를 들면 구현형의 본표제), 부호, 키워드 등의 서지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다.

3. ISBD 통합판

1971년 ISBD(M)이 제정된 후 ISBD는 계속해서 자료의 유형별로 개발 유지되었으나 2011년 통합판이 제정되었다. ISBD는 ICP 2009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통합판은 국제 목록규칙 환경 변화의 핵심 요인이 된 FRBR과의 관계가 반영되었다.

FRBR의 선택사항인 요소는 ISBD에서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FRBR에서 필수사항인 데이터 요소는 ISBD에서 선택사항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ISBD Review Group 2011, vi). 또한 ISBD는 FRBR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FRBR 개체의 속성 또는 관계를 ISBD의 요소들과 대응시켜 표시한 ‘Mapping ISBD Elements to FRBR Entity Attributes and Relationships’를 개발하였다(ISBD Review Group 2011, vii).

ISBD에서는 “FRBR 용어로 전체 ‘구현형’의 한 예가 되는 ‘개별자료’를 기술함으로서 구현형을 기술하는데 적용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ISBD는 전형적으로 서지기술이 구현형의 대표로서 개별자료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ICP를 적용한다”(ISBD Review Group 2011, vi)고 하였으며, ICP에서는 “서지기술의 데이터 요소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도서관 분야에서는 ISBD를 표준으로 한다)에 근거해야 한다”(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9, 4)고 명시하였다.

한편 ISBD 통합판은 이전에 본 표제 다음에 기술되었던 자료유형표시(GMD)를 제거하고 ‘Area 0’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사항(Content Form and Media Type)을 독립 신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GMD가 물리적 형식(physical format), 자료의 범주(class of material), 수록 매체의 형식(form of carrier) 그리고 표현 방식(예, 점자자료) 등으로 복잡하게 섞여 있으며, 나아가 GMD가 본 표제 바로 다음에 기술되어 표제관련 정보의 논리적 순서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ISBD Review Group 2011, iv).

ISBD 통합판의 ‘Area 0’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사항은 1) 내용형식(Content form), 2) 내용의 한정(Content qualification), 그리고 3) 매체유형(Media type) 등 3개의 기술요소로 구분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ISBD를 비롯한 목록규칙의 자료유형 구분에서 자료의 내용과 매체의 구분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혼란을 초래했던 상황을 정리하고 독립된 기술사항으로 배정한 것이다.

4. RDA

2010년 JSC for Development of RDA는 AACR3를 대체한 RDA를 개발하였다. RDA는

AACR을 기초로 하였으며, ISBD, MARC21 포맷 등이 참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RDA의 구성과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FRBR, FRAD 모형이라 할 수 있다. RDA는 이들 모형에서 구분한 개체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체의 속성과 개체 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체제로 구성되었다.

RDA에서 자원을 기술하는 데이터 요소는 일반적으로 FRBR에서 정의된 개체-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속성과 관계를 반영하며, 자원과 관계된 개체를 기술하는 데이터 요소는 일반적으로 FRAD에서 정의된 개체-개인, 가족, 단체, 그리고 장소-의 속성과 관계를 반영한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0-3).

RDA는 전체를 개체의 속성에 관한 규칙과 개체 간의 관계에 관한 규칙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개체의 속성에 관한 규칙에는 개체를 구현형과 개별자료, 저작과 표현형, 개인, 가족, 단체,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순서로 군집 혹은 구분하여 장절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주제에 해당하는 개체 중 장소를 제외한 개념, 대상, 사건에 대한 속성 기록은 보류되었다.

개체의 접근점 구축 규칙은 개체별 속성 기록에 분산, 포함되었다. 다만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접근점 규칙은 제외되었으며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접근점 규칙은 보류되었다.

개체 간의 관계 유형은 FRBR의 상위수준도표에서 제시된 관계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우선관계, 자원과 개인, 가족(FRAD에서 제시된 개체), 단체의 책임 관계, 저작과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주제 관계가 순서대로 먼저 배정되었으며, 그 다음에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가 배정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FRAD의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와 개념, 대상, 사건, 장소들 간의 관계가 장절로 배정되었으나 주제에 해당하는 개체 간의 관계는 보류되었다.

그러나 RDA는 기존의 목록규칙과는 달리 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기술과 기록 중심으로 구성하고 디스플레이나 표현에 관한 지침은 부록에서 ISBD와 MARC21 포맷의 요소와 대응하여 매핑한 표로 제시하였다.

5. NCR 개정안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는 2013년 2월 NCR 개정안의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NCR 개정작업에 일본 국회도서관수집서지부(이하 NDL이라고 함)와 제휴하기로 하고(日本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2013, 1) NCR 개정에 있어서 ① ICP에 준거하는 것 ② RDA에 상응하는 것 ③ 현재의 NCR 평가를 반영하는 것 ④ 논리적으로 알기 쉽고, 실무 면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 ⑤ 제공 방법을 포함하여 웹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에 유의한다(日本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國立國會圖書館 收集書誌部 2013, 1)고 명시하였다.

2014년 2월 일본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와 NDNL은 2013년 안을 수정한 NCR 개정판의 전체 구성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2013년 안과 대비하여 보면 <표 1>과 같다(國立國會圖書館 收集書誌部 2014, 13).

<표 1> NCR 개정안의 구성 대비표

2013년 안	2014년 안
제I부 총설	제1부 총설
제II부 자료에 관한 기록	제0장 총설
총설	제2부 속성
자료의 종별	<속성의 기록>
구현형에 관한 기록	섹션1 속성 총칙
저작에 관한 기록	제1장 속성총칙
표현형에 관한 기록	섹션2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별자료에 관한 기록	제2장 구현형, 제3장 개별자료, 제4장 저작, 제5장 표현형
제III부 전거형 접근점	섹션3 개인, 가족, 단체
총칙	제6장 개인, 제7장 가족, 제8장 단체
자료에 대한 접근점	섹션4 개념, 대상, 사건, 장소
총칙	제9장 개념, 제10장 대상, 제11장 사건, 제12장 장소
저작에 대한 접근점	<접근점의 구축>
표현형에 대한 접근점	섹션5 접근점
구현형에 대한 접근점	제21장 접근점 총칙
개별자료에 대한 접근점	제22장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행위주체에 대한 접근점	제23장 개인, 제24장 가족, 제25장 단체
총칙	제26장 개념, 제27장 대상, 제28장 사건, 제29장 장소
개인에 대한 접근점	제3부 관계
가족에 대한 접근점	섹션6 관계 총칙
단체에 대한 접근점	제31장 관계총칙
건명표목표에 의한 접근점	섹션7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관계
분류표에 의한 접근점	제32장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주요 관계
제IV부 관계	제33장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기타 관계
부록	제34장 개인, 가족, 단체와의 관계
	제35장 개념, 대상, 사건, 장소와의 관계
	섹션8 기타 관계
	제36장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제37장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
	부록

두 안 모두 FRBR 모형에 따라 개체의 속성과 개체 간의 관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2013년 안에서는 자료에 관한 기록에서 1집단 개체를 구현형, 저작, 표현형, 개별자료의 순으로 배열하였으나 2014년 안에서는 섹션 제목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하였고 실제 장의 배치에서는 구현형, 개별자료, 저작, 표현형의 순으로 배열하여 RDA의 배열순서와 유사하다. 그리고 2013년 안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에만 포함되었던 2집단과 3집단 개체의 속성 기록을 추가하였다.

NCR 2014년 안은 개체의 속성을 속성 기록과 접근점 구축으로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아

래에서 다시 개체 별 속성기록과 접근점 구축 규정을 두었다. 다만 접근점 구축에서는 RDA와 달리 1집단 개체 중 저작과 표현형의 전기형 접근점 외에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전기형 접근점 규칙까지 둬므로써 차별화되었다.

2014년 안에서는 제3부 관계의 유형을 세분하여 제시했으며 그 유형은 FRBR 및 RDA의 관계 유형을 준용하였다. 다만 NCR 개정안은 FRBR 상위수준도표에서 제시된 관계들 중간에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를 삽입하여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관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기타관계,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개인, 가족, 단체의 책임관계, 저작에 대한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주제 관계 순으로 배열하였다.

IV. KCR4 개정판의 구성을 위한 제안

1. 구성을 위한 원칙

FRBR, FRAD 모형은 목록규칙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웹 환경에서의 목록과 도서관 정보자원의 다변화에 대비한 서지레코드 및 전거레코드 구성을 위한 새로운 개념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KCR4 개정판은 이들 모형의 개체-속성-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들 모형에 기초하여 목록규칙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규범으로 ICP 2009가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목록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서지기술, 접근점 규칙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어있다. KCR4 개정판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ICP의 규범을 준거해야 한다.

KCR4 개정판은 FRBR 모델에 기초하여 자원의 개체를 구분하고, 속성을 기록하는 체제를 적용하되 ISBD 기술 요소와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데이터의 기술 순서나 구두점 규칙은 처음부터 규칙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DA는 데이터의 기록(recording)과 표현(presentation)에 관한 규칙을 분리하였지만 본문의 각 중 예시에서는 ISBD나 AACR의 기술순서나 구두점을 적용하였다.

RDA나 NCR 개정 과정을 충분히 참고한다. 이 규칙들은 이미 목록규칙 관련 근래의 동향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RDA는 FRBR, FRAD 모형을 수용하였으며, NCR 역시 ICP를 준거하고 RDA에 상응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만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의 보고에 따르면 평가 참여자들이 RDA의 구조, 조직, 어휘 등이 혼란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규칙의 순서가 현재의 편목업무 흐름에 맞지 않고 내용이 반복적이며 복잡하게 기술되었다고 평가하였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7). NDL도 NCR 개정안에서 RDA의 구성 중 알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섹션이나 장의 교체 등의 조정을 한다고 하였다(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14, 11). KCR4 개정판도 RDA 체계를 참고하되 좀 더 단순 명확하게 구조화 할 필요가 있으며 NCR 개정안의 구성도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목록규칙의 체계와 MARC 포맷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규칙이 도입될 경우 기존 목록 레코드와의 양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규칙 체제의 변화로 인한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목록레코드 혹은 목록규칙이 새로운 규칙과 무리 없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KCR4 개정판의 구성을 위한 제안

앞에서 살펴 본 원칙들을 종합하여 KCR4 개정판의 세부적 구성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개체의 종류와 규칙의 체제

KCR4 개정판은 FRBR 모형의 개체에 FRAD 모형의 2집단 개체인 가족을 추가하여, 자원에 관한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책임 관계의 개체는 개인, 가족, 단체로, 주제 관계의 개체는 개념, 대상, 사건, 장소로 구분한다. FRAD 모형의 기타 개체 유형은 전거 시스템 구축 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한다. 이와 같은 개체의 종류와 구분은 ICP 및 RDA, NCR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목록규칙의 체제는 FRBR, FRAD의 개체-속성-관계 모형에 기초하여 개체 유형별 속성 기록과 개체 간의 관계 기록으로 구성한다. 이는 ICP에서 제시한대로 목록 규칙은 서지세계의 개념모형(FRBR, FRAD, FRSAD)에서 정의한 개체, 속성,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9, 2)을 준거한 것이며 RDA와 NCR 개정안의 체제와도 동조된다.

다만 주제에 관한 개체의 형식이나 접근점 규칙은 목록규칙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주제에 관한 접근점의 형식이나 참조(관계 지시)는 전통적으로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에 적용된 것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에서는 주제목록을 목록의 한 종류 정도로만 열거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RDA에서도 보류되었고 NCR에서도 보류할 예정이다(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14, 12).

나. 속성 기록의 구성

RDA는 속성 기록을 먼저 개체별로 구분하고 각 개체의 식별에서 속성과 접근점 구축을

함께 다루었다. NCR 개정안은 개체의 속성에 관한 장을 다시 속성의 기록과 접근점 구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아래에 개체별 규칙을 두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NDL은 접근점 구축이 데이터 요소의 기록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기록된 개개의 요소를 조합하는 것이어서 RDA와 같이 요소 자체의 규칙과 그 조합 규칙이 혼재된 배치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14, 11).

ICP에서도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각각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전통적인 목록규칙의 구조나 편목업무의 흐름에서도 서지기술과 접근점은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KCR4 개정판에서도 전통적 목록규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도서관 현장에서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성의 기술과 접근점 구축에 관한 규칙을 각각 독립하여 다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다. 속성 기술에서 개체의 배열과 군집

FRBR, FRAD 모형의 개체 구분 및 배열과 RDA, NCR 개정안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FRBR 모형은 1집단 개체를 자원의 파생 관계와 순서에 따라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RDA는 1집단 개체를 구현형과 개별자료, 저작과 표현형으로 각각 군집하고 순서도 구현형과 개별자료를 먼저 배치하고 저작과 표현형을 뒤에 배치하였다.

NCR 개정안은 RDA처럼 군집하지는 않았으나 배열순서는 구현형, 개별자료, 저작, 표현형의 순으로 하였다. NCR 개정안의 이와 같은 배열 순서에 대하여 NDL은 '기술 대상이 구현형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먼저 두고 이하 개별자료, 저작, 표현형의 순으로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NCR 개정안의 접근점 구축에서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RDA와 달리 속성에 관한 장을 속성의 기록과 접근점 구축으로 미리 구분하고 각각의 아래에서 개체별 속성 기록과 접근점 규칙을 두는 NCR 개정안과 같은 구성 체제에서는 1집단 개체의 배열 순서를 FRBR에서 분석한 자원의 파생 관계와 체계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KCR4 개정판의 속성 기술에 관한 규칙은 1집단 개체를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순서로 배열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RDA에서처럼 2개 개체씩 군집한 장절 배치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1집단 개체를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배치하도록 제안한다.

2집단 개체는 RDA와 NCR 개정안에서 모두 개인, 가족, 단체의 순서로 배열하였으며 이는 FRBR 및 FRAD의 경우와 어긋나지 않는다. KCR4의 2집단 개체 속성 기술에서도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다만 3집단 개체의 속성 기술은 앞서의 이유로 제외한다.

<표 2> 속성 분석을 위한 개체의 구분

FRBR, FRAD 모형	RDA	NCR 개정안(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체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집단: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 제2집단: 개인·가족*·단체 - 제3집단: 개념·대상·사건·장소 기타: 인물·이름·식별기호·제어된 접근점·규칙·서지기관 		<속성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체의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의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식별 - 수록 매체의 기술 - 입수와 접근정보 제공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과 표현형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요소 : 저작과 표현형 접근점 구축 - 내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현형 - 개별자료 - 저작 - 표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가족*·단체의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가족·단체의 속성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요소 : 개인의 접근점 구축 - 가족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요소 : 가족의 접근점 구축 - 단체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요소 : 단체의 접근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가족·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가족 -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대상·사건·장소의 속성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식별기호·제어된 접근점·규칙·기관의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대상·사건·장소의 속성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의 식별 외는 보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대상·사건·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대상·사건·장소
		<접근점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 개인·가족·단체 - 개념·대상·사건·장소
* FRAD 모형에만 있는 개체		

라. 접근점 구축에 관한 규칙의 구성

접근점 구축과 관련된 ICP와 RDA, NCR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ICP에서는 제어형 접근점 유형은 개인,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그리고 동일 개체에 대한 전거형식의 이름과 이형의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이름의 형식에서는 개인명, 가족명, 단체명, 저작/표현형에 대한 형식만 제시하였다.

RDA는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구축, 개인의 접근점 구축, 가족의 접근점 구축, 단체의 접근점 구축 규정을 두고 이들 각각을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 구분하였다.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접근점 규칙은 제외하였으며, 주제에 관한 접근점 규칙은 보류하였다. RDA에 따르면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의 목적(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6-1)은 한 저작과 관련된 개체들의 군집과 계층관계 표현에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즉 하나의 저작에서 파생된 표현형들과 이들 각각의 표현형으로부터 파생된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계층 관계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군집하는 것으로 전통적 목록규칙에서 기본표목의 기능에 가깝다.

NCR 개정안은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개인, 가족, 단체,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각각의 접근점 규칙을 두었다. RDA에 비하여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전거형 접근점 규칙이 추가되었다. 후루가와 하지메는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전거형 접근점이 식별기호로 사용되거나, 고유명 주제표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古川 肇 2011, 33).

<표 3> 접근점 유형의 구분

ICP	RDA	NCR 개정안(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점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어형 접근점 : 전거형·이형 - 비제어형 접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점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접근점: 서지레코드·전거레코드 - 부가 접근점: 서지레코드·전거레코드 	<접근점 구축>	<접근점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이름의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명의 형식 - 가족명의 형식 - 단체명의 형식 - 저작/표현형에 대한 이름의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표현형의 이형 접근점 •개인의 접근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 - 개인의 이형 접근점 •가족의 접근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전거형 접근점 - 가족의 이형 접근점 •단체의 접근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단체의 이형 접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개인 •가족 •단체
이형의 이름	•개념·대상·사건·장소의 접근점 규칙 (보류됨)	•개념·대상·사건·장소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은 전통적 목록의 기본표목 구성 요소가 대부분이며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은 서지기술부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서지레코드는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과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을 대상으로 한 서지기술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으로 군집되어 그 아래서 서지기술로 표현된 구현형이나 개별자료에 대하여 다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KCR4 개정판은 자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규칙으로 효용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규칙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접근점 규칙을 제외하고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구축 규칙만 둔다. 그리고 책임에 해당하는 개체로 개인, 가족, 단체의 접근점 규칙을 둔다. 주제에 해당하는 개체의 접근점은 제외한다.

그 외에 목록규칙 상에서 접근점의 유형과 접근점의 종류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RDA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 즉 제어형 접근점 규칙만을 둬으로써 ICP에 제시된 비제어형 접근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NCR 개정안은 제어형 접근점(표목, 참조형) 이외의 접근점(ICP의 비제어형 접근점에 상당)을 포함한 접근점 전반에 관한 규칙을 둔다고 하였다(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14, 12). KCR4 개정판에서도 ICP에 따라 접근점의 유형을 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으로 구분, 명시할 필요가 있다.

ICP에서는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에 포함되어야 할 접근점을 필수 접근점과 부가적 접근점으로 구분 제시하였다(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9, 7-8). 목록레코드의 표준화를 위하여 KCR4 개정판도 서지레코드나 전거레코드에 포함될 접근점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 관계에 관한 규칙의 구성

FRBR, FRAD 모형에서 설정한 개체 간의 관계 유형과 RDA, NCR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표 4>와 같다.

RDA는 FRBR의 상위수준 도표에서 제시된 관계의 유형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로서 ‘관계 저작’이란 “식별기호, 전거형 접근점 혹은 기술에 의해 표현된 저작에 관계된 저작에 해당 한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24-1)고 정의하였다. ‘관계 표현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현형에 관계된 표현형으로만 정의하였다. 따라서 RDA의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 유형은 FRBR 모형의 관계 유형에서 일부 제외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에서는 ‘관계된 개인’을 전거형 접근점이나 식별기호에 의해 표현된 개인, 가족, 단체에 관계된 개인에 해당 한다”(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2010, 24-1)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는 FRAD의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는 장절은 배정되었으나 규칙은 보류되었다.

NCR 개정안의 관계 유형은 RDA와 동일하다. 다만 1집단 개체간의 기타 관계를 상위수준 도표에서의 관계 중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다음에 배치하였다. NDL은 그 이유를 1집단 개체가 관계된 것끼리 근접 배치하였다고 하였다(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14, 11).

FRBR에서는 서지레코드에서 관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몇 가지 관계 특히 상위수준도표에서 제시된 관계들은 단일 레코드 내에서 한 개체의 속성을 관계된 개체의 속성과 연결함으로써 간단하게 반영하고…또한 관계는 종종 하나의 레코드에 관계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목을 첨부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반영되며…뿐만 아니라 관계는 레코드

〈표 4〉 관계 유형의 구분

FRBR, FRAD 모형	RDA	NCR 개정안(2014)
<p>〈FRBR 모형의 관계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수준 도표에 제시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간의 관계 - 개인·단체와 1집단 개체의 (책임) 관계 - 1·2·3집단 개체와 저작의 (주제) 관계 •1집단 개체간의 기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과 저작의 관계 - 표현형과 표현형의 관계 - 표현형과 저작의 관계 - 구현형과 구현형의 관계 -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관계 - 개별자료와 개별자료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간의 우선 관계 •개인·가족·단체와 자원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과 관계 - 표현형과 관계 - 구현형과 관계 - 개별자료와 관계 •개념·대상·사건·장소와 자원의 관계 (보류된 상태임)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간의 (기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저작들 - 관계 표현형들 - 관계 구현형들 - 관계 개별자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 자료간의 주요관계 -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 자료간의 기타관계 - 개인·가족·단체와의 관계 - 개념·대상·사건·장소와의 관계
<p>〈FRAD 모형의 관계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수준 도표에 제시된 관계 •개인·가족·단체·저작 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개인의 관계 - 개인과 가족의 관계 - 개인과 단체의 관계 - 가족과 가족의 관계 - 가족과 단체의 관계 - 단체와 단체의 관계 - 저작·표현형·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개인·가족·단체·저작의 이형 이름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명과 개인명의 관계 - 가족명과 가족명의 관계 - 단체명과 단체명의 관계 - 저작명과 저작명의 관계 •제어된 접근점들 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가족·단체 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개인 - 관계 가족 - 관계 단체 •개념·대상·사건·장소 간의 관계 (보류된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가족·단체 간의 관계 - 개념·대상·사건·장소 간의 관계

내에서 기술된 개체와 또 다른 개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지시하거나, 특별히 관계의 성격을 표현한(예를 들면 ‘1981년판 영어 텍스트로부터 번역된’과 같은) 주기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명확하게 제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IFLA Study Group on FRBR 2009, 55-56). 개체 간의 관계는 이와 같이 서지레코드 내에서 구조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리고 주기 혹은 유사한 연결 장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상위수준 도표에서 제시된 관계 유형은 대부분 서지레코드의 구성 요소가 되거나 표목으로 첨부됨으로서 표시되었다. 이러한 관계 유형은 전통적으로 서지레코드의 조직 구조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목록규칙에서는 이러한 개체의 종류와 형식은 규정하였으나 관계의 유형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KCR4 개정판에서도 상위수준 도표에서 제시된 관계는 규칙에서 제외하고 서지레코드의 구조나 접근점으로 반영되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레코드의 조직 구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던 관계 유형을 구태여 목록규칙에 명시함으

로써 규칙을 복잡하고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 대부분은 ISBD를 비롯한 전통적 목록규칙에서 주로 주기사항으로 표현되었으며, MARC 포맷의 연관저록 필드와도 관련된다.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나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는 FRAD 모형에서 제시된 관계이다.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목록 규칙에서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되었으며 전거레코드의 전거형 데이터 및 이형 데이터의 작성과 연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KCR4 개정판에서 1집단 개체 간의 기타 관계와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규칙은 제정하도록 제안한다. 주제에 해당하는 개체 간의 관계는 앞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제외한다.

V. 결론

KCR4는 발행 당시의 ISBD나 AACR2처럼 자료의 유형별 기술규칙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접근점에 관한 규칙이 전무한 기술규칙 중심의 목록규칙이다.

서지레코드용 MARC 포맷이 통합서지용으로 제정되고 ISBD도 통합판이 제정되었다. 또한 기술단위방식이나 등가표목에 관한 논의는 잦아들고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IFLA의 FRBR, FRAD 모형은 개체의 속성 관계 분석을 채택한 목록 체계의 기반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ICP 2009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을 수용한 RDA가 제정되었으며 NCR도 개정 과정에 있다.

KCR4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목록 관련 환경의 변화는 KCR4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게 하였다. 이 연구는 목록에 관한 근래의 동향들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목록 체계와도 무리 없이 연계될 수 있는 KCR4의 개정을 위하여 그 첫 단계로 목록규칙의 구성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개체는 FRBR 모형에 따라 자원에 해당하는 개체를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책임에 해당하는 개체를 개인, 가족, 단체로, 주제에 해당하는 개체를 개념, 대상, 사건, 장소로 구분한다. 다만 주제에 관한 개체는 목록규칙에서 제외한다.

목록규칙의 전반적 체제는 1차적으로 개체의 '속성'과 '관계'로 대별하며 '속성'은 다시 속성 기술과 접근점 구축으로 구분한다.

속성 기술에서 1집단 개체는 파생 관계 순서에 따라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순으로, 2집단 개체는 개인, 가족, 단체의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기술 규칙을 둔다.

접근점 구축은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구축, 개인, 가족, 단체의 접근점 구축 규정을 두며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접근점 규칙은 제외한다.

접근점 구축에는 접근점의 유형(제어형 접근점과 비제어형 접근점)과, 필수 접근점과 부가 접근점의 종류(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를 명시한다.

‘관계’에서는 상위수준도표에서의 관계는 제외하며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기타 관계와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둔다.

이러한 제안들은 목록규칙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구성 체계를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KCR4 개정판의 구조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KCR4의 개정판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國立國會圖書館收集書誌部. 2014. 新しい『日本目録規則』全體構成案について. <http://www.ndl.go.jp/jp/data/basic_policy/conference/bib_h25_ndlresume.pdf> [인용 2015. 11. 5].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 박진희. 2009.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11-138.
- 이미화. 2012.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62-280.
- 이미화. 2011.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1): 23-42.
- 日本圖書館協會 目録委員會. 2013. 日本目録規則 改訂における NDЛとの連携について. <<http://www.jla.or.jp/Portals/0/data/iinkai/mokuroku/renkei.pdf>> [인용 2015. 11. 13].
- 日本圖書館協會 目録委員會, 國立國會圖書館 收集書誌部. 2013. 「日本目録規則」改訂の基本方針. <<http://www.jla.or.jp/Portals/0/data/iinkai/mokuroku/kihonhousin20130822.pdf>> [인용 2015. 11. 5].
- 韓國圖書館協會 目録委員會 編. 2003. 『韓國目録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2013. 『韓國目錄規則：전자책·전자저널 기술규칙』. 제4판 보유
 편. 서울：韓國圖書館協會.
- 古川 肇. 體現形・個別資料に對する典據形アクセスポイントはなぜ必要か. 2011. <<http://ojs.inf.gsucc.osaka-cu.ac.jp/TS/index.php/TS/article/viewFile/68/106>> [인용 2012. 8. 8].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2009.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 Final Report*.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br/frbr_2008.pdf> [cited 2014. 8. 5].
- IFLA Working Group on Functional Requirements and Numbering of Authority Records (FRNAR). 2013.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 A Conceptual Model*.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frad/frad_2013.pdf> [cited 2014. 8. 5].
- ISBD Review Group. 2011. *ISBD*. Consolidated ed.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isbd/isbd-cons_20110321.pdf> [cited 2015. 11. 9].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JSC). 2010. *RD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9. <http://www.ifla.org/files/assets/cataloguing/icp/icp_2009-en.pdf> [cited 2015. 11. 6].
-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http://www.loc.gov/bibliographic-future/rda/source/rdatesting-finalreport-20june2011.pdf>> [cited 2015. 10. 2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Furukawa, Hajime. 2011. *Access points for manifestation and item are needed?*. <<http://ojs.inf.gsucc.osaka-cu.ac.jp/TS/index.php/TS/article/viewFile/68/106>> [cited 2012. 8. 8].
- Jap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ue Committee. 2013. *On the Joint with NDL for NCR Revision*. <<http://www.jla.or.jp/Portals/0/data/iinkai/mokuroku/renkei.pdf>> [cited 2015. 11. 13].
- Jap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ue Committee and National Diet Library, Acquisition Dept. 2013. *A Basic Policy for NCR Revision*. <<http://www.jla.or.jp/Portals/0/data/iinkai/mokuroku/kihonhousin20130822.pdf>> [cited 2015. 11. 5].
-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ue Committee, ed.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ue Committee, ed. 2013. *Korean Cataloging Rules : For Electronic Books and Electronic Journals*. Sup. of 4th ed.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Mihwa. 2012.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KCR4 under the New ICP 20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62–280.
- Lee, Mihwa. 2011. “A Study on Considerations in KCR4 through Changes of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23–42.
- National Diet Library, Acquisition Dept. 2014. *On the Structure of New NCR*. <http://www.ndl.go.jp/jp/data/basic_policy/conference/bib_h25_ndlresume.pdf> [cited 2015. 11. 5].
- Park, Jin-Hee. 2009. “Comparative Analysis on Descriptive Rules of RDA and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11–138.